

어린이 발표



저는 혼자 있는 친구와 같이 놀았어요.
알렉시스 에이치, 7세, 캐나다 노바스코샤



저는 신권을 받고 성전으로 가서, 엄마와 제가 이름을 찾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 침례를 받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브리검 더블유, 11세,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저는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사라 디, 6세,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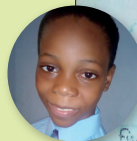
필립 더블유, 8세, 잉글랜드 랭커셔



저는 학교 놀이터에 쓰레기가 있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교장 선생님께 친구랑 가서 쓰레기를 주워도 되겠는지 여쭙었어요. 제가 좋은 시민으로서 행동했다는 게 참 뿌듯해요.
엘리아 디, 10세,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저는 어린 아기인 남동생들을 돌보시는 엄마를 도와드려요.
사만타 에스, 8세, 독일 베를린



페르미 에프, 8세, 나이지리아 라고스